

4. 마을의 특징

이 마을은 갈피(葛皮)와 면(綿), 송이가 많이 나고, 농토가 비옥하여 갈면(葛線)이라 하였고 한다.

1) 성황당(城隍堂)

성황당은 소로실과 갈마점에 1개소, 갈면에 1개소가 있는데, 당사(堂舍)는 없고 수백 년 된 나무를 성황신으로 모시고 매년 정월 보름 엄선된 제관이 목욕재계하고 마을의 안강과 풍년을 기원하는 동제사를 지냈다. 이 마을에는 가정별로 큰 나무나 바위를 지정해 해마다 단오 무렵에 치성을 드리는 ‘산맥이’ 고사가 전승된다.

2) 한지생산

갈면리·길곡리·기양리 등지에서 창호지 원료인 저피(楮皮)가 많이 생산되고 냇물이 깨끗하여 질이 좋은 창호지가 많이 생산되고 있다.

제2절 금매1리(金梅一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근남면 진북리와 경계를 이루고, 서쪽은 매화천을 경계로 매화2리와 금매2리 몽천동과 인접되며, 남쪽은 매화1리, 북쪽은 근남면 구산리와 경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약 2km 북쪽에 성류굴이 있다. 마을회관은 2014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2. 마을의 역사

1) 대좌비(對座碑)

영양 남씨가 분가(分家)하여 살던 곳으로 지금도 한두 집이 살고 있는데 뒷산 봉우리에 대좌비(對座碑)가 있었다 하여 대지비라고 전하고 있다.

2) 쇠니이(蘇老村)

1400년경에 단천군수(端川郡守)를 역임한 영양인(英陽人) 남득공(南得恭)이 경주에서 입

향(入鄕), 개척(開拓)하여 살면서 쇠니이(蘇老村)라 하였고, 1880년경부터 금답(金畓)이라고도 하였다. 금답(金畓)이란 뒷산에 금(金)이 나고, 마을 앞에는 비옥한 토지가 많다는 뜻이며, 쇠니이(蘇老村)라 함은 인생이 늙으면서도 다시 소생(蘇生)한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3) 장징이(長井, 長亭)

1640년경에 삼척 김씨(三陟金氏)가 마을을 개척할 당시 가뭄이 심하여도 석천(石泉)의 우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하여 장징이(長井)라 하였고, 또한 장정(長亭)이라고 정(亭)자를 쓰는 것은 망우당 곽재우(郭再祐) 장군이 임진란을 평정한 후에 휴양 차 소실(小室)의 고향인 장정동(長亭洞) 방어사곡(防禦使谷)에서 10여 년간 체류하면서 정자(亭子)를 짓고 죽세공(竹細工)으로 생계를 이어간 데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한다.

3. 가구 분포

총 39세대가 거주하며 영양 남씨(英陽南氏), 강릉 최씨(江陵崔氏), 김녕 김씨(金寧金氏), 울진 장씨(蔚珍張氏), 삼척 김씨(三陟金氏), 흥해 배씨(興海裴氏) 등이 세거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방어사곡(防禦使谷)

홍의장군 곽재우(紅衣將軍 郭再祐)가 임진란을 평정한 후에 이곳 방어사골에 살면서 장정동 동쪽에 있는 산정(山頂)에 왜적의 침입에 대비한 방어진지(防禦陣地)를 구축하였는데 지금도 큰 바위에 구멍 뚫린 흔적이 남아있다. 이러한 연유로 ‘방어사곡’, ‘방우실골’이라 전하고 있다.

2) 성황당(城隍堂)

장정동의 우물을 성황신(城隍神)으로 모시고 매년 정월 대보름날에 제관을 엄선하여 목욕 재계하고 마을의 무병과 풍년 농사를 기원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성황제를 올리지 않고 있다.

3) 쇠니이(蘇老村)의 명당(名堂)

1400년경에 입향, 개척한 영양 남씨(英陽南氏)가 한 터에서 600년 동안 대대로 자손이 이어져 살고 있다.

4) 장정저수지(長井貯水池)

1975년경에 착공하여 3년여 만에 준공된 이 저수지는 장정동 입구에 자리 잡고 있으며, 담수량도 풍부하여 금매리 앞들에 관수하고 있다. 또 주위의 산과 계곡의 경치가 아름답고 조용하며 잉어와 붕어 등 많은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어 낚시꾼들이 찾아들고 있다.

제3절 금매2리(金梅二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매화천이 흐르고 건너편 7번 국도변에 금매1리가 있다. 서쪽은 남수산(嵐岵山) 지맥이 마을 뒷산이며, 남쪽은 매화 2리와 인접하고, 북쪽은 근남면 구산리와 경계를 이루며 1.5km 거리에 성류굴이 있다. 마을회관은 2019년에 신축되었다.

2. 마을의 역사

금매2리를 몽천동(蒙泉洞)이라 하는데, 1630년경에 매오공(梅塢公) 윤몽열(尹夢說)이라는 선비가 이 마을을 개척하여 몽천(蒙泉)이라 하였다고도 하고, 또 이우당(二友堂) 주개신(朱介臣)공과 윤몽열(尹夢說)이 이곳에 정자(亭子)를 짓고 몽천(蒙泉)이라 하였다고도 전한다. 언덕에 서당(書堂)을 짓고 어릴 때 덕(德)을 키운다고 하여 “몽이양정(蒙以養正), 몽이육덕(蒙以育德)”의 몽(蒙)자와 샘물천(泉)자를 따서 동명(洞名)을 지었는데 몽천서당에서 유래되었다.

3. 가구 분포

총 62세대가 거주하며 의령 남씨(宜寧南氏), 영양 남씨(英陽南氏), 파평 윤씨(坡平尹氏),新安 주씨(新安朱氏), 울진 장씨(蔚珍張氏) 등이 분포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독치골(獨峙谷)

이 고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는, 재가 높고 우뚝 솟아있는 독봉(獨峯)이라 하여 부르던 이름이다.